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미 증시, 경기 피크아웃 논란 속 혼조 마감

2021.8.3

서상영 sangyoung.seo@mira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인프라 투자 관련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
- 다만, 전기차 및 반도체, 백신 기업이 호재성 재료로 강세를 보이는 등 종목 차별화
- 그런 가운데 장 마감 앞두고 경기 피크아웃 이슈가 지속되며 매물 출회되며 혼조 마감
- 다우 -0.28%, 나스닥 +0.06%, S&P500 -0.18%, 러셀2000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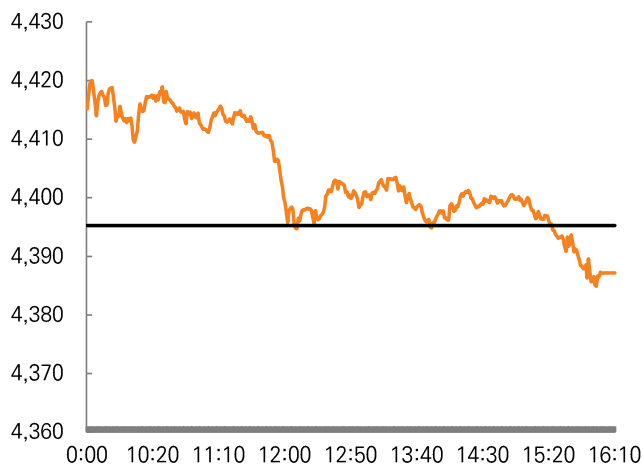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테슬라(+3.27%)는 니오(+2.62%), 샤오펑(+7.06%) 등의 견고한 인도 발표로 급등. 더 불어 7월 30일 중국 정부의 전기차 육성, 탄소중립 시행 등도 긍정적인 영향. 여기에 골드만 삭스가 고객들에게 매수 권고 리스트에 포함 시켰다는 소식도 강세 요인
- ON 세미컨덕터(+11.73%)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낙관적인 전망 발표 후 급등
- 스퀘어(+10.16%)는 호주 핀테크 회사 인수 발표 후 급등. 이 여파로 글로벌 페이먼트(-11.18%),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6.66%), 파이어브(-4.66%) 등은 하락
- 견고한 실적 발표한 태양광 업체인 솔라엣지(-0.68%)는 시간 외 11% 넘게 급등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02%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7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1.4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4%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보합권 등락에 그친 점은 부담. 특히 중국에 이어 미국의 제조업지표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 속도 둔화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 부분 또한 부담.
- 물론 경기 회복 속도 둔화이지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연준은 여전히 비둘기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그 폭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 대체로 지수 보다는 종목별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돼 미 증시 특징처럼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관련주에 주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223.04	+0.65	홍콩항생	26,235.80	+1.06
KOSDAQ	1,037.80	+0.65	영국	7,081.72	+0.70
DOW	34,838.16	-0.28	독일	15,568.73	+0.16
NASDAQ	14,681.07	+0.06	프랑스	6,675.90	+0.95
S&P 500	4,387.16	-0.18	스페인	8,758.70	+0.96
상하이종합	3,464.29	+1.97	그리스	897.45	+1.03
일본	27,781.02	+1.82	이탈리아	25,351.60	-0.0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 확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경기 회복 둔화 및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로 장 중 1.15%까지 하락. 국제유가 또한 4% 가까이 급락하는 등 대체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이는 세가지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데 먼저 미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연장 실패인데 7월 31일 기존에 합의했던 부채한도 적용 기간이 종료. 당장은 2~3개월은 재정을 이어갈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소진하면 미 정부는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됨. 물론 재무부의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음. 그러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을 할 수 없어 금리의 변동성 확대 등 불안 심리는 높아짐

두번째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인데 여론 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 6월 코로나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률이 89%였으나,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40%에 그쳤음. 더불어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도 3%에서 45%로 큰 폭으로 증가. 최근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 일주일 평균 6월 말에는 1만명 초반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8만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난해 팬데믹 사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세번째로 중국과 미국 경제지표들이 예상을 하회하는 등 지표 둔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 지난 31일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7월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50.9)를 하회한 50.4로 발표. 특히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신규수주(51.5→50.9)는 물론 신규 수출지수(48.1→47.7)가 둔화되는 등 연속적으로 부진.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53.5→40.1), 필리핀(50.8→50.4)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었다는 점. 이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더욱 확대 시켰다고 볼 수 있음.

더불어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60.6)이나 예상(60.8)을 하회한 59.5로 발표되었고 신규수주(66.0→64.9), 생산지수(60.8→58.4) 등도 대부분 위축. 미국 6월 건설지출도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쳐 예상(mom+0.3%)을 하회. 특히 기업설비투자를 의미하는 비주거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7% 감소. 공공지출 또한 전월 대비 1.2% 감소 하는 등 대부분 위축.

미 증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상승 출발 후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임. 물론 나스닥의 경우 일부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에 기반해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7월 미국 ISM 서비스업지수,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통화정책 및 경제 전망 관련 발언, 금요일 7월 미국 고용보고서의 중요도가 높아짐. 이 결과까지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며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전기차, 반도체 강세 Vs. 결제 시스템 업종 급락

테슬라(+3.27%)는 니오(+2.62%), 샤오펑(+7.06%), 리오토(+0.87%) 등의 7월 견고한 인도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 이는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인도실적 개선 기대를 높인데 따른 것으로 추정. 더 나아가 7월 30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언급된 전기차 육성, 탄소중립 시행 등도 긍정적인 영향. 여기에 골드만 삭스가 고객들에게 매수 권고 리스트에 포함 시켰다는 소식도 강세 요인. 화이자(+2.69%), 바이오엔텍(+3.61%)는 유럽의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 소식에 강세. 모더나(-1.98%)는 백신에 대해 완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에 하락. ON 세미컨덕터(+11.73%)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낙관적인 전망 발표 후 급등. 특히 자동차 및 산업용 수요 가속화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AMD(+2.30%)는 상승세를 지속. NXP세미컨덕터(+1.25%)은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보합 중

스퀘어(+10.16%)는 호주 핀테크 회사 인수 발표후 급등. 이 소식으로 카드 발급 처리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하는 결제 기술 회사인 글로벌 페이먼트(-11.18%),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6.66%), 파이서브(-4.66%)는 물론 비자(-2.68%), 마스터카드(-2.77%)는 급락. 로빈후드(+7.20%)는 ARK인베스트가 6,500만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수 했다는 소식에 급등. 퍼스트솔라(+2.59%)는 태양광 모듈 수요 및 가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투자조건 상향 조정 되자 강세. 솔라엠티(-0.68%)은 실적 발표 후 11% 넘게 급등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99	대형 가치주 ETF (IVE)	-0.34
에너지섹터 ETF (OIH)	-1.21	중형 가치주 ETF (IWS)	-0.26
소매업체 ETF (XRT)	-0.02	소형 가치주 ETF (IWN)	-0.74
온라인소매 ETF (IBUY)	+0.27	대형 성장주 ETF (VUG)	-0.19
금융섹터 ETF (XLF)	+0.03	중형 성장주 ETF (IWP)	-0.03
기술섹터 ETF (XLK)	-0.36	소형 성장주 ETF (IWO)	-0.23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9	배당주 ETF (DIVV)	-0.01
인터넷업체 ETF (FDN)	-0.28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27
리츠업체 ETF (XLRE)	+0.04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39
주택건설업체 ETF (XHB)	-0.13	미국 국채 ETF (IEF)	+0.37
바이오섹터 ETF (IBB)	+0.04	하이일드 ETF (JNK)	-0.55
헬스케어 ETF (XLV)	+0.14	물가연동채 ETF (TIP)	-0.56
곡물 ETF (DBA)	+0.16	Long/Short ETF (BTAL)	+0.23
반도체 ETF (SMH)	+0.71	모멘텀 ETF (MTUM)	-0.0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유틸리티	337.62	+0.75	+1.09	+3.73
경기소비재	1,442.73	+0.28	-3.04	-0.74
헬스케어	1,541.20	+0.17	+1.26	+3.07
부동산	290.06	+0.01	+0.28	+3.70
금융	606.39	-0.08	+0.08	-1.25
통신	272.78	-0.19	-1.85	+1.35
필수소비재	736.57	-0.29	-0.26	+2.05
IT	2,683.64	-0.37	-1.07	+1.91
에너지	370.33	-0.71	-1.60	-10.44
산업재	867.26	-0.72	-0.96	-0.68
소재	521.16	-1.17	+0.69	+0.1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등락 속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02%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7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1.4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4%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강세에 출발 했으나 중국 제조업 지표 둔화 여파로 하락 전환하는 등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가 부각. 그러나 낙폭을 키우던 중국 증시가 특별한 요인 보다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하자 한국 증시 또한 반등에 성공. 특히 외국인이 현물은 순매도 했으나 선물을 순매수하며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는 등 수급적인 부분 또한 우호적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보험권 등락에 그친 점은 부담. 특히 중국에 이어 미국의 제조업지표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 속도 둔화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은 부담. 더 나아가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가된 점을 감안 외국인 수급 부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 경기 부양 정책 약화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입된 수급 부담이라는 점에서 하락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물론 경기 회복 속도 둔화이지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재정 부양책이 약화 되고 있으나 연준은 고용에 더 주목하며 여전히 비둘기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그 폭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 그렇지만 상승 또한 경기 및 이익 피크아웃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 될 것으로 예상돼 대체로 지수 보다는 종목별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경제지표 예상 하회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60.6)이나 예상(60.8)을 하회한 59.5로 발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66.0→64.9), 생산지수(60.8→58.4), 재고지수(51.1→48.9) 등은 부진했으나 고용지수(49.9→52.9)는 크게 개선

미국 6월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쳐 지난달 발표(mom +0.3%)와 예상(mom+0.3%)를 하회. 전년 대비로는 8.2% 증가.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용 지출은 전월 대비 1.1% 증가했으나 기업설비투자를 의미하는 비주거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7% 감소. 공공지출 또한 전월 대비 1.2% 감소

미국 7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62.1)이나 예상(63.1) 보다 개선된 63.4로 발표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유가, 미 중 제조업 지표 둔화 여파로 하락

국제유가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하락. 특히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가 지속되자 중국 경기 회복 속도 부진 우려로 매물이 출회. 여기에 미국 ISM 제조업지수 또한 예상을 하회하는 등 미국과 중국 경기 회복 속도 약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4% 가까이 급락. 한편, 7월 아시아 주요국 제조업 지수도 대부분 약화돼 향후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달러화는 경제지표 부진과 코로나 확산 여파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보험권 등락.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강세를 보였으며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혼조

국채금리는 중국에 이어 미국의 경제지표가 예상을 하회하자 하락. 여기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종료돼 향후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중단된 점도 금리 하락 요인. 더 나아가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6월 말 7일 평균 1.5만명 내외에서 현재 8만명 가까이로 확대되는 등 관련 이슈 또한 금리 하락 요인. 여기에 독일 국채금리의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각국의 금리 하락도 영향

금은 미, 중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국의 인프라투자 기대와 미, 중 제조업지표 둔화가 충돌하며 보험권 혼조 양상. 곡물은 대부분 상승했으나 대두는 양호한 날씨가 지속되자 상승이 제한. 옥수수는 브라질 초기 수확보고서에서 예상을 하회하자 큰 폭으로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82% 상승했으나 철근은 2.27%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92.074	-0.11	-0.62
WTI	71.26	-3.64	-0.90	Dollar Index	1.1871	+0.01	+0.58
브렌트유	72.89	-3.34	-1.10	EUR/USD	109.35	-0.34	-0.94
금	1,822.20	+0.28	+1.04	USD/JPY	1.3885	-0.14	+0.48
은	25.58	+0.11	+1.02	GBP/USD	0.9051	-0.09	-1.20
알루미늄	2,615.00	+0.97	+3.81	USD/CHF	0.7362	+0.25	-0.31
전기동	9,700.50	-0.28	-1.11	AUD/USD	1.2508	+0.26	-0.34
아연	3,050.50	+0.78	+1.31	USD/CAD	5.1828	-0.56	+0.12
옥수수	559.25	+2.57	+2.29	USD/BRL	6.4638	+0.01	-0.30
밀	729.50	+3.66	+7.75	USD/CNH	1,150.90	+0.05	-0.35
대두	1,353.50	+0.31	-0.31	USD/KRW	1,151.40	-0.10	-0.16
커피	172.80	-3.76	-16.84	USD/KRW NDF1M	92.074	-0.11	-0.6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177	-4.50	-11.23	스페인	0.232	-3.40	-4.70
한국	1.910	+4.30	+6.00	포르투갈	0.133	-3.80	-6.80
일본	0.017	-0.50	+0.50	그리스	0.562	-3.60	-7.80
독일	-0.487	-2.60	-6.90	이탈리아	0.570	-5.00	-5.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